

광주시, 96개 동별 주민주도 생활자치 역량 키운다

주민자치 회장·위원 등 100여명, 26~27일 고흥서 워크숍
광주형 주민자치 활동 성과 공유·법제화 등 정책방향 모색
강기정 시장 “제도 혁신 통해 광주형 주민주권 모델 완성”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가 26~27일 이틀간 고흥 일원에서 96개 동 주민자치회 회장과 위원, 시·구 담당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 주민자치연합회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그동안의 주민자치 성과를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워크숍은 전문가 특강, 주민자치 유공자 표창, 현장 견학 등으로 진행됐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 지방자치 발전 및 균형발전의 날’ 유공자 포상 전수식에서는 김호성 동구 주민자치협의회장이 국민포장을, 김재현 서구 주민자치협의회장이 최지숙 월산4동 주민자치회장이 행안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송만복 운암3동 주민자치회장과 김종이 우산동 주민자치회장은 광주시장 표창을 수상했다.
광주시는 주민총회 확대, 자치계획 수립 지원, 공동체활동 연계 강화 등을 통해 동별 생활자치 역량을 고르게 높여왔다. 이러한 성과는 지난 11월10일 열린 ‘2025 주민자치·공동체 한마당’에서 확인됐다.
또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 30주년 기념 주민자치 우수사례 공모전’에서도 서구 풍암동과 광산구 송정1동이 우수상을, 서구가 장려상을 수상하는 등 전국 우수사례 10건 중 3건을 차지해 광주시가 주민자치 선도시로 평가받았다.
광주시는 주민자치회 제도 정착을 위한



지난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간 고흥 일원에서 열린 ‘2025 광주광역시 주민자치연합회 워크숍’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법제화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 8월 ‘주민자치 입법 촉구 결의대회’에서 주민자치위원 3003명(참여율 93.4%)이 서명해 국회와 정부에 전달했다. 그 결과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지난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지역의 변화는 주

민이 가장 잘 알고 실행할 수 있다. 광주시는 96개 모든 동에서 주민자치를 실천하며 주민주권을 도시 전반으로 넓혀가고 있다”며 “법제화 추진과 지속적인 제도 혁신을 통해 광주형 주민주권 모델을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전광훈 기자

광주 동구(청장 임택)는 지난 8월 발굴·선정한 동명 로컬 크리에이터 4팀이 동명동의 지역성과 창의성을 반영한 특화상품을 최근 개발 완료하고 제5회 동명커피산책에서 선보여 시민들의 호응을 얻었다고 밝혔다.
동구는 ‘광주 대표 1호 상품’인 동명동의 브랜드 경쟁력 강화와 로컬 비즈니스 생태계 확장을 목표로 ‘광주 우수상권 집중육성 고도화 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를 통해 로컬크리에이터 중심의 지속가능한

‘골목이 브랜드가 되다’ 동명로컬상품 4종 탄생

광주 동구 “밀크티 믹스·드립백 패키지 등에 동명동 감성 담겨”

상권 생태계를 조성해 힘썼으며, 올해는 동명동에서 사업을 운영 중인 로컬크리에이터가 직접 기획·제작하는 로컬 특화상품 개발을 집중 지원했다.
이번에 개발된 상품은 ▲잡정 은퇴의 저가커피인 ‘동명심야커피’ ▲연재의 공예

브랜드 ‘동명 COFFEE-CUP’ ▲홍차 카페티의 ‘동명동 밀크티 믹스’ ▲물고기커피 로스터스의 ‘드립백 디자인 패키지 개발’ 등 총 4종이다.
이들 상품은 지난달 8일 ‘제5회 동명커피산책’ 기간 중 동명면세점 팝업에서 시

음·전시·판매를 통해 첫선을 보였으며, 방문객들로부터 높은 관심을 받으며 동명동의 새로운 로컬브랜드로 자리매김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임택 동구청장은 “창의적인 로컬크리에이터의 활동이 동명동 골목의 매력을 채우고 확장한다”면서 “이번 특화 상품들이 동명동만의 정체성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판로 개척과 홍보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오철수 기자

남구, 마을활동지원 전문가 과정 교육생 모집

오는 12월 19일까지 접수...선착순 25명 선발 예정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주민주도의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마을활동지원 전문가 교육과정에 함께 할 주민들을 공개 모집한다.
남구에 따르면 제4기 남구 마을활동지원 전문가 양성 교육생 모집이 오는 12월 19일까지 4주간 진행된다.
(사)남구도시재생마을협력센터에서 주관하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마을 활동에 관심이 있는 주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교육생 모집 인원은 25명으로, 선착순이다.
프로그램 참가를 희망하는 주민은 (사)남구도시재생마을협력센터에 전화(☎ 674-3982) 접수하거나, 이곳 센터 홈페이지(https://uvn.or.kr) 공지 사항에서 해당 게시물을 클릭한 뒤 QR코드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제4기 남구 마을활동지원 전문가 교육은 내년 1월 7일부터 3월 25일까지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마다 진행되며, 출석률 80% 이상 교육 수료자에게는 전문가 인증서 발급과 함께 학습연구회 운영·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또 마을 감사와 멘토, 코디 등 공익활동가를 모집하는 경우 가산점도 부여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사)남구도시재생마을협력센터로 문의하면 자세한 내용 안내받을 수 있다.
(사)남구도시재생마을협력센터 관계자는 “마을 활동은 혼자보다는 함께할 때 더 큰 힘을 발휘하게 된다”면서 “마을공동체에 관심을 두고 있는 여러분들의 참여와 열정이 마을의 변화를 이끄는 핵심 자원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임채일 기자

광주 북구,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추진

건물 239개소 대상으로 총 16억 원 규모의 사업 진행

광주광역시 북구(구청장 문인)가 탄소중립 에너지자립도시 조성을 위해 총사업비 16억여 원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에 나선다.
27일 북구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2026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시비 9억 6천여만 원을 확보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은 주택 및 상가를 대상으로 태양광, 태양열 발전에 필요한 설비 설치비용을 최대 85%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북구는 지난 2월부터 신재생에너지 설비 전문 기업 6개소와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사업 수요조사를 실시하는 등 공모에 사전 대응한 결과 한국에너지공단 총괄평가에서 사업의 타당성

을 인정받아 지원 대상지로 최종 선정됐다.
공모 선정에 따라 올해 확보한 국·시비 예산은 구비 매칭분과 자부담액을 더해 내년 2월부터 북구 소재 건물 239개소(주택 210개소, 일반건물 29개소) 대상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설비 설치에 투입된다.
이번 사업을 통해 북구는 주민들의 에너지 비용 절감은 물론 탄소중립 에너지자립도시 실현 분위기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문인 북구청장은 “앞으로도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송현근 기자

전남도, 올해 SNS 3개 대회 ‘역대 최대’ 수상

올해의 SNS·소셜아이어워드·대한민국 SNS 대상 등 휩쓸어

전라남도는 올해 국내 대표적 SNS 어워드 3개 대회에서 6개 부문을 휩쓸는 등 역대 최대 수상 성과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26일 ‘2025 올해의 SNS’에서 광역자치단체 블로그 ‘대상’과 유튜브 ‘최우수상’을 받았다. 앞서 지난 7월 ‘소셜아이어워드 2025’에서 광역자치단체 블로그 ‘대상’, 유튜브·인스타그램 ‘최우수상’에 이어 10월 ‘2025 대한민국 SNS 대상’에서 ‘최우수상’을 받아 국내 최고 권위 3개 SNS 어워드에서 모두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이는 도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쉽고, 재밌고 트렌디하게 콘텐츠를 제작해 블로그, 유튜브 등 7종의 SNS 매체를 운영한 것이 주요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전남도 블로그는 콘텐츠 기획력, 생활 밀착형 카드뉴스, 여행·복지·

안전 정보를 담은 트렌디한 콘텐츠, 100명의 SNS 서포터즈가 제작한 매일 2~3건의 현장 중심 기사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구독자 12만여 명을 보유한 ‘전남도 유튜브’는 핵심 정책을 간결하게 소개하는 ‘정책 1분컷’, 데이터를 활용한 ‘전남 순위 TOP5’ 등에서 총 493만 조회수를 기록해 주목을 받았다.
또한 흑백요리사 우승자 나폴리맛 피아가 전남지역 맛집을 탐방하는 ‘맛부심 시즌2’도 총 조회수 357만 회를 달성하며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한편 김규용 전남도 대변인은 “올해는 SNS를 통해 도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한 결과 좋은 성과가 있어 뜻깊다”고 말하면서 “앞으로도 소셜미디어 트렌드를 반영한 참신한 콘텐츠로 전남의 매력을 널리 알리겠다”고 밝혔다.

/염성호 기자



전남도가 ‘2025 올해의 SNS’에서 광역자치단체 블로그 대상, 유튜브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광주시, 김장철 농산물 잔류농약검사 강화나서

보건환경연, 12월19일까지 배추·무·갓 등...부적합면 즉시 폐기

광주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은 김장철을 맞아 서부·각화 농산물도매시장과 대형마트, 로컬푸드직매장 등에서 유통 중인 농산물을 대상으로 12월19일까지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한다.
검사 대상은 배추·무·갓·파 등 김장에 주로 사용되는 농산물로, 다이아지는 등 345개 항목의 잔류농약 검사가 이뤄진다.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이 내려지면 해당 농산물은 식품위생법, 농산물품질관리법 등에 따라 즉시 압류·폐기해 유통을 차단한다.
또 관할 행정기관에 도매시장 출하 제

한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요청한다.
광주보건환경연구원 서부·각화농(수)산물검사소는 올해 1월부터 11월 현재까지 4060건의 유통 농산물을 검사했으며, 이 중 85건(2618kg)의 부적합 농산물을 적발, 전량 폐기해 시중 유통을 막았다.
정현철 보건환경연구원장은 “김장철 주요 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를 주·야간 실시하는 등 강화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광훈 기자

